

익산시, 환경문제해결 최우선 해결

범시민대책위 출범... 환경분야 행정적 지원 방침

익산시는 지난 23일 출범된 '익산환경문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관련, 시의 환경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산적해 있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수년전부터 지속되는 현안 환경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낭산지역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장점마을 비료공장 오염사고, 악취저감대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낮추기 위해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대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특별합동 지도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365일 환경오염 감시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시 공무원만으로는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웠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준다고 하니 반기는 일이다"며 "앞으로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익산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청 펜싱선수단 여자 사브르팀의 김지연, 황선아 선수가 2019 헝가리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땀다.

익산시청 펜싱팀, 국제대회 입상

김지연·황선아 선수, 헝가리 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 3위

익산시청 펜싱선수단 여자 사브르팀의 김지연, 황선아 선수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진 2019 헝가리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여자 사브르팀은 단체전 16강전 경기에서 독일대표팀을 45-39로 물리쳤으며 8강전에 진출한 미국 대표팀을 45-39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올라 세계펜싱강국 프랑스 대표팀에 43-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3,4위전에 올라 이탈리아 대표팀을 45-35로 이겨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김지연, 황선아 선수는

올해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해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앞으로도 남은 각종대회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익산시청 펜싱팀은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제59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여자 펜싱 사브르팀이 올해도 국내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 김지연, 황선아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부상 없이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폭염대비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

승강장·전통시장 36개소에 얼음비치

보행로에 인공 안개비 '미스트폴'도 설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시장 김임준)의 다양한 폭염 대책 추진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및 전통시장 36개소에 현재 얼음비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관내 승강장 10개소 정도에 에어커튼을 설치 준비 중으로 시민들이 승강장 이용할 때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공 안개비인 콜링포그를 이용해 보행로에 미스트폴을 설치해 노지에서 인체에 무해한 깨끗한 수돗물이

미세 물방울로 분사돼 주위의 열을 빼앗아 2~3°C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마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이 많은 오전 10시, 12시, 14시 3차례에 걸쳐 마을 방송을 실시하며,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게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부를 확인해 고령자들의 폭염사고와 예방활동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입

는 폭염취약계층들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군산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경로당) 394개소에 대해 야간에 운영을 실시해 열대야로 인해 잠들기 힘든 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폭염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폭염대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군산지역에는 온열질환환자가 27명 발생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열사병 10명, 열탈진 9명, 열경련 6명, 열실신 2명으로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美 타코마시와 교류 활발

군산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워싱턴주 타코마시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매결연도시인 워싱턴주 타코마시 학생들과 국제학교 및 전라북도 청소년 40여명이 25일 군산지역 탐방 일정에 맞춰 일제강점기 시대 근대문화역사와 새만금 방조제 및 고군산 군도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주 청소년들의 양 지역 문화 및 언어 교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라북도와 워싱턴 간 '2019 한미 청소년 문화교류캠프'를 운영 하며 이뤄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제232차 월례연구발표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오는 26일 원불교학 연구 학자 3명을 초청해 제232차 월례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연구발표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근원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성찰'에 대해 묻는 취지로 마련된 가운데 충남대 김방룡 교수가 '원불교 사상에 나타난 미륵신앙'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충남대 철학과에 재직 중인 김방룡 교수는 한국선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사상가 10인-지눌(공저)',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한국불교의 전개 및 근 현대 불교계의 동향', '교육과 한국불교' 등 저서를 편찬했다. 이어 교서 정역과 종교연합 운동, 초기 불교, 중국 선종, 원불교와 전통 불교의 교리 등을 연구하는 류정도 교수가 원불교 '근원'의 불교요지(佛敎要旨) 등에 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야외 물놀이장 무료 개장

안전요원 배치...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는 지역 내 4곳에 야외 물놀이장을 25일부터 개장해 8월 11일까지 18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익산시체육회 주관으로 2015년부터 올해로 5년째 운영되는 야외 물놀이장은 연 평균 2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놀이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영등시민·배산체육공원에는 수심 60cm의 초등학생풀 2개과 수심 40cm의 유아풀 1개, 슬라이딩 미끄럼틀이, 중앙·수도산체육공원에는 수심 60cm의 초등학생풀 1개가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풀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장 차광막과 평상, 풍골텐트(휴식공간, 탈의실 등)를 설치하고 구급약품과 상비약을 비치했으며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고 소독하는 등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을 4곳 풀장에 설치하고,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없는



안전한 시설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야외 물놀이장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한여름 폭염에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내 설치된 바닥분수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소형양배추' 해외 수출 호조

7월 현재 전년비 3배 늘어난 110톤... 겨울까지 순항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소형양배추가 해외수출 효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4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소형양배추 수출이 대만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소형양배추 수출을 위해 20ha의 논에 양배추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농촌진흥청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돼 지난 6월27일에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관계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형양배추 수출은 지난해 40톤에서 금년에는 7월

현재 3배 가량 늘어난 110톤까지 증가했으며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소형양배추를 군산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양배추 대량 생산을 위한 재배 기반 조성, 수확후 저장관리, 수출시장 개척, 전용 포장재 개발에 힘써 2023년까지 80ha까지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소비자를 위해 7월부터 전북지역 대형마트 전주, 군산, 익산점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수출 못지 않게 국내 판매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가을에는 전국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